논어 20편 요왈 3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不知命，無以爲君子也；不知禮，無以立也；不知言，無以知人也。」

독음 · 자왈 부지명 무이위군자야 부지례 무이립야 부지언 무이지인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, 예를 알지 못하면 바로 설 수 없으며,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不 아닐 불 / 知 알 지

命 목숨 명 명 / 無 없을 무 무 / 以 써 이 이 / 爲 할 위

君 임금 군 / 也 어조사 야 / 禮 예도 례 례 / 立 설 립 립

言 말씀 언 언 / 人 사람 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